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본격 시동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가시화

광주시의 대표적 현안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20일 광주시 정민곤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올해 내 사업 제안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 1)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 시작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운정현 시장은 약속한 대로 연내 착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장기간 중단된 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민관TF(전담팀)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

렴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5년 첫 삽을 떴지만, 불법탄 제거와 경기불황, 민간업체 자금난,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까지 겹쳐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7월 용역과 민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민간개발 방식을 전제로 숙박시설 축소, 상가시설 확대 등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이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조

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등 갈등도 보인다.

한편 철도공사와의 부지매입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중재로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에 착수해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지 매입 협의가 끝나면 올 연말 건립 기공식을 거쳐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5·18민주화운동 등 현대사 현장을 지켜온 전일빌딩을 매입해 전면 리모델링에 착수했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일부 구간도 내년에 우선 착공한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일빌딩에 오월뮤지엄·미디어터널·오월전망대

5·18 기념공간 설계안 발표 전일방송 라디오 부스·광주일보 윤전실 복원...VR 체험관 등

5·18 당시 헬기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에 오월뮤지엄, 원형 보존공간, 미디어터널, 오월전망대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현존하는 5·18 역사의 산증거로 꾸미겠다는 ‘5·18 기념공간 기본계획설계(안)’가 20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기본계획설계(안)에 따르면 로비에서는 5·18 역사의 현장을 설명하는 리플릿을 비치하고 4개 국어 가이드 어플을 제공하며, 로비 일부는 전일빌딩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이미지 파노라마로 연출 예정이다.

9층에는 전남 최초의 민영방송인 전일방송(VOC)의 라디오 뉴스부스를 복원해 관람객들에게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의 정권장악,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을 라디오와 흑백 TV뉴스로 설명한다. 당시 전일빌딩 지하 1층에 있던 광주일보의 윤전실을 복원해 신군부의 언론 장악과 왜곡, 보도금지된 내용을 설치미술적으로 연출한다.

또 5·18 VR체험관을 만들어 계엄군의 발표사격과 옥상의 저격병, 전일빌딩 계엄군과 YMCA 시민군의 격전, 항쟁의 마지막 날을 재현하고, 진실의 방을 만들어 북한군 개입설, 최초 발표명령자,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이야기와 영상을 전시한다.

탄흔이 남아 있는 10층에는 육군본부의 헬기사격 작전지점, 총탄자국,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의 탄흔조사, 탄흔 복원공간 등을 아이টেماً 해 3D 복원, 인터뷰 영상, 유물 복제 쇼케이스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미디어터널에는 기록사진 속

의 역사들을 미디어아트로,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미디어영상으로 각각 소개한다. 옥상에는 37년 전 사진과 오월 이야기를 주제로 한 브론즈동상이 들어선다.

전일빌딩은 광주일보 옛 사옥으로, 광주시가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전일빌딩의 토지(2252㎡)와 건물(2만132㎡)을 매입했다.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10층 규모의 현재 모습을 갖춘 전일빌딩은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바 있다. 시는 전일빌딩 내부를 5·18기념공간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연관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시민상’ 문 대통령 “촛불혁명, 세계 민주주의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뉴욕 인터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크리스티나 라가르도 IMF총재로부터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란틱 카운슬) 주최로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 인터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2017 세계시민상’ 시상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시킨 촛불집회 영상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제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 대서양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서 청와대는 세계시민상을 수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 영상을 후보 시절과 취임 후 100일간 있었던 주요 장면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팽목항에서 세월호 리본을 달았던 장면을 비롯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안아준 모습,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장면 등이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취소생 트뤼도 캐나다 총리,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 등과 수상한 문 대통령은

수상소감을 통해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문 대통령은 “평화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촛불시민’이여말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수상자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행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회의장에서 환담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자 관계 발전방향,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제하고 압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전시 총괄 겸임 안한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겸임 논란(광주일보 9월 11일자 2면, 9월 12일자 1·2면)과 관련 김 대표 본인이 전시 총괄큐레이터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광주시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김 대표는 현재 직분에서 전시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 대표가 독일 출장을 가기 전인 지난 12일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시에 총괄큐레이터를 겸임하지 않고 대표이사직에서 큐레이

터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2018 광주비엔날레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독일 출장을 다녀온 김 대표를 상대로 조만간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8일 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 공동 큐레이터 제도를 도입하고 김 대표가 총괄큐레이터를 맡아 전시를 꾸리는 안을 찬성 4, 반대 3으로 가결했다. 일각에서는 재단 운영을 총괄임해야 할 막중한 자리의 대표이사자 전시

기획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전시 예산 집행 등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게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대표의 시에 총괄큐레이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시 관계자는 “김 대표는 선의의 입장에서 겸임할 뜻을 피력했는데, 뜻밖의 논란이 일자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총괄큐레이터라는 표현도 조금 과장된 듯하며 김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대 고속도로’→‘달빛고속도로’ 길 열려

국토부, 노선명 개정안 예고 道 새 금고 지정 오늘 공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의 명칭을 ‘광대 고속도로’ 대신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도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면 고속도로 이름을 주민·지자체가 원하는 것으로 붙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 지정은 고속도로 이름을 도로 기점과 종점을 우선해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대’라는 어감이 주는 반감 탓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의 이름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 이 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옛 ‘88고속도로’는 2015년 12월 왕복 4차선 확장 개통을 앞두고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두 지역명의 순우리말 앞글자만 따 달빛고속도로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는 내년부터 3년간 도 금고로 운영할 금융기관 지정절차에 들어갔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도보와 도 누리집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6일 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 16~17일 제안서 접수 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말 금고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15일 올해 전남도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6조397억원, 특별회계 6848억원, 기금 1조881억원으로 모두 7조8126억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신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직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 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운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